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7. 예수님의 형상

2013. 02. 1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상의 복음적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 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4~16]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1. 목사님, 계시록1:13에 예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했는데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먼저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인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없는 몇 가지 경우입니다. 신약성경에 인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는 경우가 80번 정도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관사 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신약에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계1:13절과 요5:27과 계14:14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관사가 없이 인자라고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말하면 a man입니다. 요 5:27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이고 계14:14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인자)가 구름 위에 앉았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는 꼭 “같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인자가라고 하지 않았습시다. 복음서에는 81회나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로 인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 외에는 인자라는 칭호가 계시록에 두 번 (1:13,14:14), 사도행전에 한 번(7:56) 그리고 히브리서에 시8:5을 인용한 곳에 한 번(히2:6) 모두 합해서 네 번인데 신약에 모두 85회가 기록되어 있네요. 히브리2:6의 인자에도 정관사가 없습니다. 원래 시편 8:5절은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그분이 완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인데, 다니엘 7:13,14에서 인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인자로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후에 그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영원히 인자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엄청난 낮춤이시지요. 그러나 그분은 엄연히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2. 예, 인자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하늘로 가셨고 하늘 성

전에서 인자로 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실 때 형제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시니 참 든든합니다. 그분의 복장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답: 예, 이제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발에 끌리는 옷은 아주 긴 옷이지요. 주석가들은 이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라고 하네요. 또 이 옷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복장을 계시적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띤 것도 대제사장과 왕의 옷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왕과 대제사장은 같은 직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은혜의 왕은 사유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로 표상된 교회 역사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계시적 형상입니다.

3. 긴 옷과 가슴의 금띠는 대제사장과 왕의 옷차림을 보여주는 것이군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가슴에 흉배를 달았는데, 거기에는 열 두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겼는데, 금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대제사장의 옷으로 볼 때 그것은 지상의 대제사장의 옷차림과는 다른데 왜 그렇지요?

답: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군요. 이 말씀을 그렇게 비교하는 주석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예사로 보고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런데 목사님이 물으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흉배의 12 보석은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돌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그 촛대들은 바로 교회의 전 역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은 2, 3장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예수께서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것은 모든 교회를 돌보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흉배가 나타내는 상징성이 일곱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것으로 상징이 되고요, 가슴에 금띠를 띤 것은 대제사장과 왕의 위엄과 권위로 교회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왕의 권위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것을 표상하는 것이지요.

4. 예, 아주 합리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용모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답: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읽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지요.

[계1:14~16]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예, 머리털과 눈, 발, 음성, 오른 손, 입, 얼굴 이렇게 차례대로 용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요? 사람 같이 보이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

시적 형상으로서 상징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이지요.

5. 그렇지요. 그것이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묘사입니까?

답: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말은 단7:9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니엘서에는 성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성자와 성부의 일체성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이해됩니다. 또 성경에서 흰 색깔은 항상 권위와 영광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런 묘사는 그리스도의 성결과 영원성 혹은 그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흰 머리털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노인의 머리털 색깔이지요. 이것은 오랜 경험으로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고 또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잠16:3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20:29]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यो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시119:100]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구절들은 다 노인의 위엄과 권위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이런 계시적 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흰 양털과 눈 같다는 표현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순결함을 표상하지요.

[사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의 피로 씻어서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실 것을 보증하시는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6. 참 감사하네요. 예수님의 형상을 상징으로 나타내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사를 결코 빠뜨리지 않으시는 은혜는 참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순결함과 같이 순결하게 해주신다는 보증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 그렇지요, 그렇고말고요. 다음은 눈에 대한 묘사이지요. 불꽃같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구약 배경은 다니엘 10: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계시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에 눈이 햇불 같다고 했거든요. 사실 계시록에 묘사된 이 부분은 다니엘 10:6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루 살펴보시는 기능을 묘사한 것입니다. 히4:13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별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한 사실을 형상화 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 만상이 그리스도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눈으로 일곱 교회 시대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판단하시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도 아시니까 예수님께 숨기려는 노력은 정말 헛된 노력입니다.

다음은 발에 대한 묘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10:5,6절과 같은 표현인데 그 말씀한 번 읽도록 합시다.

[단10:5,6]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6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 읽어보니까 거의 같은 표현이지요. 여기에도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풀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애굽을 쇠 풀무라고 했습니다.

[신4:20]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렘11: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쇠 풀무 같은 애굽으로 표상된 죄의 세상에서 단련된 발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고난당하셔서 승리하신 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환난을 당해도 능히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상징하는 발이지요.

[시60: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시108:13]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미7:19]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사실을 다양하게 묘사했는데, 다 발로 밟는다고 했습니다. 그 발은 쇠 풀무 같은 죄의 세상에서 단련된 발입니다. 다음은 음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 소리 같다고 했지요. 이것도 다니엘 10:6절의 기록과 같지요. 다니엘에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했는데, 무리는 물로 상징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17:15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계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런데 물소리와 같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에스겔서와 시편에 있습니다.

[시29:3]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겔4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 표현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많이 여호와로 현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

소리와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엄하고 압도하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소리에 다른 소리들이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만상의 소리가 다 그 음성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위엄과 불가항력적인 권세와 두려움이 총일한 음성입니다. 이 표현은 14:2과 19:6에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음성입니다.

[시46:6] 이방이 흰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7.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우주가 잠잠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별에 대한 이야기지요?

답: 예,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15: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사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행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잡힌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10:28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지요.

그 손에 있는 것은 일곱 별입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20절에 해석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지요. 일곱 교회의 사자는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하지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인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하지요. 별에 대한 말씀도 다니엘서에 있지요.

[단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이 말씀도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야말로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별들입니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가 됩니다.

8. 예, 목사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목사로서 교회의 지도자인데 정말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지도자로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입에 대한 묘사인데요

좀 무섭군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답: 이 모습은 실제 모습이 아니고 계시적 형상이라고 이미 말씀 드렸지요.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런 묘사는 19:15에도 있습니다. 히브리 4:12에 잘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6:17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읽어봅시다.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엡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묘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19:15절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집행을 행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1:16절의 의미를 심판과 집행에만 적용하기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히4:12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은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계시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요12: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계시록의 이 구절을 굳이 심판에만 국한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영생에 이를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올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심판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께서 이 사실을 선고하실 것이고 집행하실 것입니다. 19장은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여기에 검이라는 말은 “롬파이아”인데 혀 모양처럼 생긴 칼을 뜻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살후2:8절에는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인다고 하셨는데 기능상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칼을 쓰는 것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생명의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하겠지요.

9. 성경의 표상들이 아주 적절합니다. 세상에서도 말을 칼보다 무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도 그렇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할는지 잘 가르쳐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답: 예, 얼굴이지요.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했는데, 다니엘서에는 얼굴이 번갯빛 같다고 했군요.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목도한 제자지요.(마17:2)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과 우월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계21:23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얼굴이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수님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형상은 당연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그늘 없는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봉사를 인자 같으신 이의 형상 속에 상징으로 가르쳐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얼굴 빛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